



이영민  
개인전

성남시청 공감갤러리 2층

2017. 10. 30 Mon ~ 11. 05 Sun



해제구의

사이와 틈 - 존재

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은 원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존하는 것이며 부재하는 것이다.

다만 그것은 존재를 남기는 것이다.